

豫算戰略決定者에 對한 影響要因分析 小考

——豫算局과 各部處의 關係를 中心으로 ——

金錫俊
(15回卒業)

<目次>	
第一章 序論	第4節 綜合的評價
第1節 研究의 目的	第四章 豫算決定에서의 部處·豫算局 關係와 影響要因과의 相關性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第1節 假說
第二章 豫算決定過程과 그 影響要因	第2節 調査方法 및 資料의 萃集分析
第1節 豫算決定過程	第3節 相關性 立證을 위한 x^2 -test
第2節 影響要因	第4節 細部假說의 立證
第三章 豫算決定에서의 部處와 豫算局의 關係分析	第5節 歸結假說
第1節 豫算決定擔當者로서의 經濟企劃院	第6節 豫算決定에서의 變數間의 比重
第2節 各部處 및 그 豫算의 性格과 영향요인의 分析	第7節 豫算決定과 圓滿度
第3節 各部處와 豫算局과의 關係評價	一研究의 限界—
	第五章 結論

第一章 序論

第1節 研究의 目的

現代國家가 行政國家로 發展함에 따라 發展行政이 그 重要한 課題로 등장하게 되고 國家發展이나 經濟發展이 더욱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經濟發展을 長期에 걸쳐서 한나라 經濟의 實質國民所得이 增加도록 하는 過程⁽¹⁾으로 理解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60年代에 들어서서 國家發展目標를 國家의 基本政策目標로 삼고⁽²⁾ 이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經濟發展計劃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計劃의 成功의이고 効果的·能率의인 違行을 為하여서는 적절한 豫算의 供給으로 人的 物的 資源의 適當한 配分이 必要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豫算이란 國家政策을 反映하는 구체적 計量化⁽³⁾ 혹은 “政策이라는 基本的 準據 (Basic Framework)안에서 이를 實踐하기 為한 具體的인 手段

(1) Gerald M. Meier & R. Baldwi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History, Policy*. (N.Y: John Wiley, 1957). p. 2.

(2) 朴東緒編, 發展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3, p. 25.

(3) David J. Ott and Attiat F. Ott, *Federal Budget Polic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6) pp. 20~21.

(4)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國家의 모든活動과機能의 大部分은 必然的으로 豫算을 必要로 하고 있는 만큼 政府各機關은 自體의 事業을 為하여 豫算의 編成과 그 執行에 強烈な 關心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나. 그러나 大體로 國家의 財源은 限界가 있는 만큼 政府各機關의 意慾의인 事業을 모두 遂行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서 一定한 豫算是을 놓고 各部處間に 豫算編成에서부터 國會議決로 確定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豫算을 獲得하기 위한 各部處의 은강手段과 戰略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各部處에서 3 서로 많은 豫算을 確保하기 為해서 可能한 모든 方法을 動員하고 있고 이에 對하여 豫算當局에서는 數많은 部處의 要求를 놓고 限定期內에서 相互調整하고 그 事業들間의 優先順位를 定하고 또, 各部處間의 均衡을 維持하면서 行政首班인 大統領의 意圖를 가장 잘反映할 수 있도록 効果의이고 能率의인 豫算編成을 為한 對應戰略이 作用되게 되는 것이다.

이들 兩者的 關係를 “豫算戰略(Budgetary Strategy)”이라고 現하고 있는데 이러한 豫算戰略을 決定하고 實行하는 豫算局과 各部處와의 關係에 影響을 주고 1는 要因들이 있으니 그 重要한 것 으로는 ①各部處의 政治的 影響力, ②豫算要求書의 性質, ③關係者間의 人間關係, ④部處事業에 對한 部處의 見解와 豫算局見解의 差異, ⑤部處와 그 奉下機關과의 關係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要因들이 豫算局과 各部處의 關係를 圓滿하게 或은 圓滿하지 못하게 作用하므로서 實際政府內에서의 豫算이 決定되고 이것이 國會의 議決을 거침으로서 確定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政府의 豫算案이 3% 이상 修正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政府의 豫算案이 原案에 약간의 形式的인 修正을 받고 確定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筆者は 豫算決定過程中 政府內에서 豫算局과 各部處의 關係를 中心으로 위의 影響要因들이 어느程度로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 影響의 程度와 그에 따른 効果를 分析함을 本研究의 目的으로 한다.

(4) Williams, Alan. *Public Finance and Budgetary Policy*,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63)
p. 272.

이는 새로운豫算戰略이나 政策自體를 提議하려 함이 아니고 그에 앞선段階로서 이들을 為한合理的인 根據를 提示하기 為하여 假說導出과 事實究明을 本研究의 目的으로 하였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1. 研究의 對象 및 範圍

本論文에서는豫算戰略決定者를 經濟企劃院豫算局과 各部處로 보고 그 나머지 諸變數들은 이들兩者에 直接으로 影響을 주는 環境으로보아豫算案이라는 하나의 產出物(Output)이 나오기까지의 諸過程中에서 政府內에서의豫算編成過程에서 各部處와 經濟企劃院과의 關係,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影響要因들로서 大統領, 國會, 與黨, 事業의 性質, 見解의 差異, 部處의 内部 奉下機關과의 關係性, 部處·豫算局의豫算擔當者間의 人間關係, 等을 研究의 對象으로 불러하며 나머지 國民, 利益團體, Mass Com.等은 除外하기로 한다.

以上의 對象을 좀더 具體화시키기 為하여 經濟企劃院에서는豫算局을 選定하고 그에 對應하는 各部處中에서는 行政府 13個部에서 無作為抽出(Random Sampling)한 8個部處를 選定하였으며 이들은 建設部, 保健社會部, 文教部, 農水產部, 交通部, 科技部, 法務部 및 商工部이며 이들 部處에서도豫算을 擔當하는 關係者를 研究對象의 單位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 部處는 그 事業의 性格 等이 分析되어야 하고 그 部處豫算額決定과 經濟企劃院과의 關係가 圓滿한지 與否는 ① 圓滿度, ② 滿足度, ③ 各部處(豫算額/要求額)比, ④ 綜合的評價等에 依하여 圓滿한 程度 與否를 評價한다. 이러한 評價를 為한 細部事項은 本論에서 充實히 다루도록 한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5가지의 影響要因의 分析은 하나하나의 要因을 實際 計量화시키기 為하여 각각에 可能한 여러가지의 指標(Indicators)를 選定하였으니 ① 政治力評價를 為하여 部處長官에 對한 大統領으로 부터의 信任度, 國會와 與黨으로

부터의 信賴度, 政治的인 部處間의 評價 等을 指標로 삼았으며, ② 豫算의 性質은 그것이 얼마나 事業計劃과 關聯되어 計量化시키고 있는가, ③ 豫算關係者間의 人間關係는 相互間의 對話傳達度 (Communication), 部處事業에 對한 豫算局의 認識態度 및 그 程度, 事業에 對한 好意度, 接촉時 公式度, 接촉回數등의 指標로서 測定코자 하였으며 ④ 事業에 對한 部處와 豫算局의 見解의 差異, ⑤ 旗下機關이 部處內에서 어느정도 獨立性, 自律性을 누리고 있으며 그 數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程度 等을 5個의 要因(factor)을 測定하기 위한 指標로 삼고 그를 각者가 역시 調査의 對象이 된 것이다.

2. 研究의 方法

資料의 華集은 質問紙, 文獻 및 面接을 通하여 어느정도 事業의 聽法(outline)을 파악하고 豫算局用과 部處의 質問紙를 서로 內容은 비슷하면서 問項을 달리하여 作成하고 豫備調查(Pretest)를 試實하여 11項과 用語를 調整한 後 本調查를 配表調查로 施行하여 그 資料와 文獻資料를 面接內容과 綜合하여 信賴性과 妥當性을 높이도록 하였다. 華集된 質問紙資料를 計量分析의 道具를 利用하여

影響變數와 部處·豫算局間의 圓滿度사이의 相關性有無의 有意性을 x^2 -test에 依하여 檢定하고 各影響變數들 間의 重要度가豫算決定時 어느정도인지 を 順位相關分析, 相關分析, 回歸關係決定係數, 等의 統計方法에 依하여 檢定하고 그 有意性檢定도 함께 行하였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서 檢定된 假說들은 本論文의 核心이 될 것이며 目的이 될 것이다. 단, 資料蒐集을 為한 質問紙作成과 適用對象, 그들의 性分, 期間, 方法, …等의 細部事項은 本論에서 資料處理와 함께 상세히 說明ト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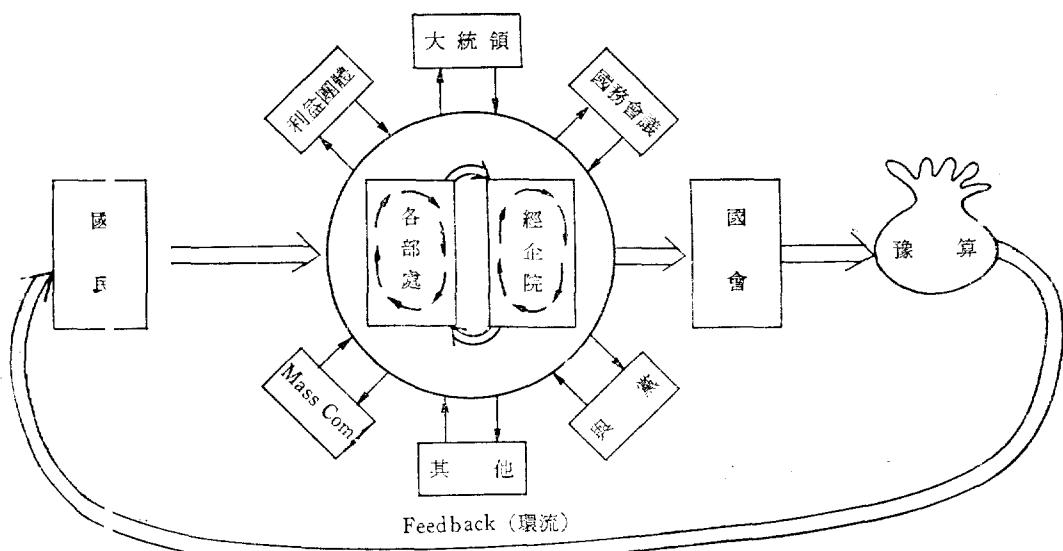
第二章 豫算決定過程과 그 影響要因

第1節 豫算決定過程

1. 豫算決定過程模型

豫算決定을 Input→Throughput→Output→Feed Back→Input→…으로 繼續되는 하나의 決定過程 (Decision Process)으로 파악하고⁽⁵⁾ 이 過程中政府內의豫算決定過程을 細分化해 보면 ① 經濟企劃院長官의 「豫算編成指針」起案→ ② 指針의 國務會議審議→ ③ 大統領의 承認→ ④ 中央官署의

圖 2-1 豫算決定過程模型



(5) Donald Gerwin, "Toward a Theory of Public Budgetary Decision Making," ASQ, March 1969 (Vol. IX. No. 1), pp. 35~37.

長에게 示達→ ⑤ 各部處에서 「豫算要求書作成」→ ⑥ 豫算要求書: |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 ⑦ 經濟企劃院의 檢査→ ⑧ 國務會議의 審議→ ⑨ 大統領의 承認→ ⑩ 國會提出等으로 政府內의 作業過程은 끝나게 된다.

2. 豫算戰略決定者.

豫算戰略이란 豫算決定過程에 있어서 各部處가 좀더 많은 豫算을 確保하기 위하여 豫算局에 對하여 動員하는 각 가지 技術的手段과 이에 對應하는 豫算局의 各部處에 對處하는 方法을 말하며 이를決定하고 遂行하는 豫算戰略決定者는 豫算局關係者와 各部處豫算擔當者들로 볼 수 있고 機關別로 보면 이들로 構成된 豫算局과 各部處로 볼 수 있다.

3. 各部處內의 豫算決定過程⁽⁶⁾

經濟企劃院으로부터 「豫算編成指針」을 받은 各部處의 豫算擔當官은 「長官의 指針」과 함께 各局長, 各官署長에게 豫算要求書의 作成을 爲한 諸資料의 提出을 依賴하여 豫算編成의 大體의 指示를 보낸다. 한편 이를 받은 各局·各官署의 豫算擔當官은 自體 | 歲入 및 歲出豫算要求書를 作成하여 이들을 2次에 걸쳐 局·課長會議를 열어 修正檢討하고 이내 完成된 것은 長·次官에 報告되며 이를 部處豫算擔當官은 總括하여 歲入·歲出豫算要求案을 留한다. 그뒤 長·次官의 主宰下에 各局長·各官署長·企劃管理室長·部處豫算擔當當

官等이 連席하여 最終的으로 論議함으로 各部處의 豫算要求案을 決定하여 完成하며 여기에 各種 書類를 添附하여 經濟企劃院에 提出함으로써 各部處內의 過程은 一段 끝나게 되는 것이다.

4. 經濟企劃院의 作業過程

新年度 豫算規模推計, 各部處 豫算要求書의 接受·分析, 豫算局 試案의 作成, 經濟企劃院長·次官의 調整, 青瓦臺, 總理室 等에 隨時報告·調整, 關係機關과의 協議, 次官會議, 國務會議에서의 政府豫算案確定, 各種資料의 作成과 油印을 끝낸 다음 國會에 豫算案 提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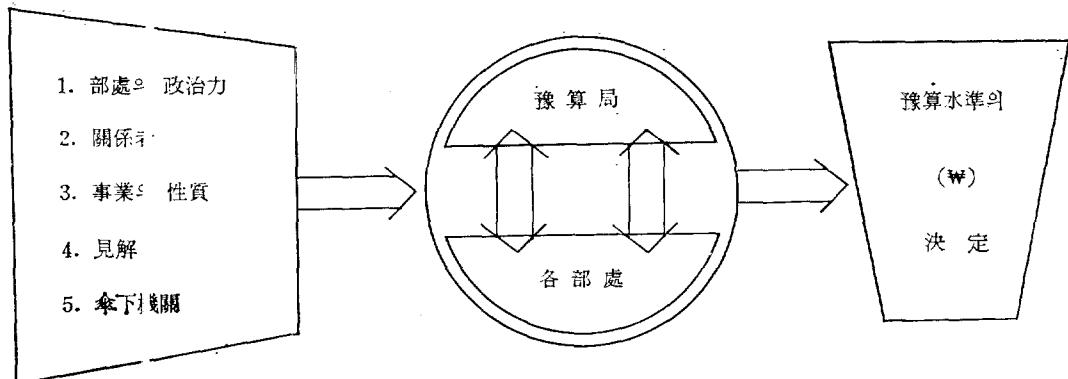
第2節 影響要因

1. 部處의 政治的 影響力.

一般的으로 行政府內에서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의 政策決定에 影響을 주는 助言者를 大分해 보면 靑瓦臺秘書室, 閣議 또는 行政府, 政黨 또는 國會, 其他로서 言論, 實業人, 元老政治人 等을 들 수 있겠다. 이들 中에서 閣議 또는 行政府의 役割을 생각해 보면 內閣責任制보다는 弱한 것이事實이지만 各長官이 個別의 으로 大統領에 接近하는 것은 비고적 自由로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豫算編成이라는 問題에 있어서도 各部處長官의 政治的力量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行使하는 것이 事實이다. 또, 이때 長官만이 아니라 部處自體의 政治力이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도 否認

圖 2-2 豫算決定의 動態過程分析模型



(6) 俞 煦, 財務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3, pp. 162~164에 걸쳐 詳細히 說明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 각부처에 있어서의 政治的影響力이란 長官의 政治的能力과 部處構成員各者の 政治的能力을 總合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는 具體적으로 長官이 얼마나 大統領의 信任을 받고 있으므로 國會로부터의 信任과相互關係가 圓滿하여 執權者인 與黨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며 與黨內實權者에게 어느정도의 發言權을行使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前職長官들이 在職中 務務遂行의 가장 큰 隘路로서 豫算面을 첫째로 들고 있고 또 長官의 指示事項이 實現되지 않는가 혹은 理由도 豫算不足으로 나타날 정도로 豫算問題는 가장 重要한 問題中の 하나로서 部處의 長官에서부터 下級關係者에 이르기까지 各階層의 모든 사람에 關心을 둘 수 밖에 없는 重大한 事實인 만큼 이는 政治的인 面에서도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政策遂行上 가장 큰 장애요인이 「豫算의 不足」, 「豫算의 確保困難」! 만큼 「部處의 어머니」인 次官은 「部處의 아버지」인 長官을 도와 部處의豫算을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에 部處의 政治力은 長·次官의 團結力程度에 달려 있는데 다음의 4가지 類型이 있다.⁽⁷⁾

〈表 2-1〉 長官과 次官과의 關係에 따른 部處의 政治力

緊密度		長·次官의 關係	
専門生	次官	緊密	疏遠
		専門家	I
専門外	非専門家	II	IV

① I 類型: 次官의 貢獻圖와 영향효과가 가장큰 類型이다.

② II 類型: 次官이 早速한 時日內에 業務把握이可能하면 참신하면서 바람직한 類型이다.

③ III 類型: 限定된範圍에서 次官은 長官을 補佐할 있는 類型이다.

④ IV 例型: 위의 어느 類型보다 次官의 貢獻度

와 영향效果가 낮다.

이러한 政治的 戰略을 고려하더라도 물론 豫算局과의 豫算協議過程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正面鬭爭(Straight Argument) 方法」이다. 그러나 豫算獲得을 위해서는 正面鬭爭만으로는 不足하여 效果的인 結果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正面鬭爭과 함께 間接的인迂迴方法에 依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 大統領이나 與黨實力者, 國會의 關係議員等의 支持를 動員하여 目的을達成하고자 한다. 때에 따라서는 利益團體나 MassCom等의 外部勢力を 利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迂迴方法은 이것이豫算局에 알려졌을 때는豫算局關係者와 部處間의 關係를 도리어 惡化시켜 逆效果를 거두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2.豫算關係者間의 人間關係

各部處에서 要求한豫算을 實際查定하는 것은豫算局查定官들이다. 흔히豫算局에서 部處의豫算을削減하는作業을 「대폐질」「도끼질」이라고表現하는데豫算查定에 있어서 「도끼」나 「대폐」를 잡고作業하는 사람은豫算局의構成員인查定官이며 이들도 역시人間이다. 그러므로各部處豫算擔當官과豫算局查定官의人間關係가 「대폐질」이나 「도끼질」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事實이다.

그렇다고豫算局查定官이 부처事業計劃과 實行을體系적으로 分析·檢討하는데⁽⁸⁾ 使用하는 判斷基準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豫算決定時에 있어서查定官에게 많은裁量이 주어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查定官의 役割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重要한 것은查定官의確固不動한查定基準임은 두말할必要가 없으나 그의個人의判斷을誘導하는복잡하고微妙한關係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各部處豫算擔當官은豫算局의查定官과 좋은人間關係를 맺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一般的으로部處의豫算擔當官은 가는 重要한職責中의 하나이며 部處內에서最高의才能을가진 사람들中에서人事配置되어야 한다는主

(7) 最高政策決定職의 役割에 關한 研究 一長·次官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부설行政研究研究所, 서울, 1973. pp. 63~66.

(8) esse Burkhead, *Government Budget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6. p. 247.

張⁽⁹⁾은 根據가 5 는 얘기이다. 또 査定官이 部處事業에 對하여 5 느정도 好意의이며 잘 알고 있는 가하는 것도 重要하다.一般的으로 査定官이 部處事業에 對하여 5 알면 알수록 部處에 有利하지만 때로는 不利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좋지 않은 人間關係의 結果라고 말해도 過言이 아니다. 또 現査定官이 아무리 非好意의더라도 새로운 査定官이 오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人間關係의 수립을 위한 努力의 어려움과 人間關係의 重要性을 表現하고 있다. 또 美國의 경우 한 關係者는 象算局과 各部處의 關係가 80%정도는 人間關係에 달려 있다고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關係者끼리의 접촉은 大概各階層別로 이루어 시는데 重要한 政策的인 問題는 局長이나 더 높은 Level에서, 行政實務的인 것은 그 以下 Level에서 5 妥決이 이루어진다.

또, 만약 이를 봄에 葛藤이 있다면 部處에서는 이를 속히 解決할 수 있도록 方法을 取해서 항상 좋은 關係를 維持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葛藤解方法으로는 Simon의 主體別 解決方法이나 Thompson의 葛藤解方法別 理想構造模^型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決定作成을 둘러싼 Power Diffusion의 程度라는 連續線(Continuum)을 使用한 것으로 組織間의 葛藤일 경우에는 紅燈·政治·Compromise·Inspiration等으로 갈등 해결이 可能하고 集團間 葛藤보다 個人間 葛藤에는 分析的 方法인 問題解^決·說得·Judgement等이 5 등해결에 使用된다.⁽¹⁰⁾ 이러한 理論을 예산국과 각부처 및 豊算擔當官의 關係에 적용하여 各部處와 豊算局 豊算關係者等으로 나누어서 갈등 해결方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人間關係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度를 지나 公職의 倫理를 害치거나 圓滿한 人間關係維持를 위한 重한 財政的負擔을 지우는 그릇된 方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事前에 경계해야 할 事項이기도 한다.

3. 豊算要求書의 性質.

各部處는 自己部處의 豊算을 좀더 많이 確保하기 위해서 可能한 모든 方法을 總動員하고 있으며 그 方法들 中에는 行政實務的으로 部處의 事業을 計量化하여 正確하고 妥當性 있는 豊算을 要求하는 것이 名分(just cause)으로 보아도 가장 좋은 方法中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며 事業計劃은 便益과 費用의 比가 1以上일 때만 오직 正當化될 수 있다고 Burkhead는 말한다. 이와 같이 모든 豊算의 根據가 誇張이나 隱蔽 있는 實事에 立脚한 正當하고 正確하여 豊算編成指針에 따른 것이라면 다른 어떤 計策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 自體가 하나의 훌륭한 戰略이며 널리 권장할만한 方法이다.⁽¹¹⁾ 또, 좀더 効果의이고 信賴할 수 있는 豊算을 編成하기 위해서는 ① 그 部處의 前年度 豊算規模 檢討, ② 現代國家의 情勢의 變化를 新年度 豊算編成에 考慮, ③ 部處 豊算要求의 正確性과 热誠·誠實性, ④ 部處 事業計劃에 對한 從前의 關係機關이나 關係官으로 부터의 言質(Comment), ⑤ 利益集團의 要求, ⑥ 部處의 前年度 執行實績,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이러한 實事들을 모두 考慮하여 豊算要求는 事業에 對하여 充實하면서 事業計劃을 正確히 量的으로 計量化함이 바람직 하지만 實現的으로 實現可能성이 問題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豊算要求書가 量的으로 計量化된 것이 크게 환영을 받아 豊算查定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實事이다.

4. 部處事業에 對한 部處와 豊算局 見解의 差異原則의 으로 各部處에서는 事業計劃을 獨立의 으로 樹立하고 이것을 實行하기 위해서 豊算을 要求하게 된다. 이러한 豊算은 豊算局에서는 大統領의 편에 서서 그의 政策에 對한 見解와 基本政策方針을 基準으로 各部處의 事業들을 評價하고 그에 따라 豊算을 채정하는 것이다. 各部處는 見解差를 좁히고자 「豐算編成指針」과 「豐算局에의 事

(9) Arthur Smithies, *The Budgetary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55. p. 215.

(10) J.G. March and H.A. Simon, *Organization*, John Wiley & Sons. New York, 1958, pp. 122~131.

(11) Leonard I. White,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Macmillan, New York, 1955, p. 173.

前調査」等에 依한 努力を 기울여 豫算을 編成하지 만 全히 見解差를 解决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일 수록 더욱 部處와 豫算局은 說得과 理解를 위한 많은 접촉이 必要하며 여러가지 情報에 對하여 必要한 統制를 行하게 된다.⁽¹²⁾ 또, 때에 따라서는 見解差의 밀미암은 갈등의 解決을 위해 豫算決定을 연기하는 경우도 하나의 方法으로 使用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見解의 差異는 豫算決定에 있어서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長官의 垂下機關에 對한 統制.

어느 部處에서나 垂下의 여러 局 가운데서 長官의 統制를 똑같이 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그 部處의 特別한 事情에 依하여, 혹은 長官의 政治的 leadership에 依하여, 때로는 어떠한 局은 長官의 統制를 덜 받고 다른 面에서 政治적으로 有力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特定한 局長이 大統領이나 青瓦臺, 國會, 與黨과의 關係가 좋아서 長官도 그를 마음대로 統制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 局長과 長官은 部處豫算編成에 있어서도 약간의 不和가 있을 수 있다. 즉, 다른 局보다는 自律性이 強하게豫算을 책정하여 直接豫算局을 通하여 自己局의豫算을 確保하려고 하는 경향도 可能할 것이다. 이렇게 각局이豫算局에 直接豫算要求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部處全體로서는 확한 不利益이며 部處豫算擔當官도 Leadership로 地位를 잃어豫算局과의 關係에도 混亂을 가져올 수 있다.⁽¹³⁾ 그 結果 各部處豫算은豫算局으로부터 크게削減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長官이 여러개의 垂下의 局들을 偏重함이 없이 均等화를 對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局의 要求間에 均衡을 깨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6. 其他

以外에도豫算局查定官에 對한 非公式의 「條件의 交換(Bargain of Advantage)」에 依한 方法, 또, 一隻의 欺瞞策으로서의 「陷阱利用(Tactics of Tricks)」方法 등이 있다.

第三章 豫算決定에서의 部處와豫算局의 關係分析

第1節 豫算決定擔當者로서의 經濟企劃院豫算局.

1. 經濟企劃院의 沿革.

2. 豫算局의 位置・組織 및 機能.

가) 우리나라의豫算局은企劃處의 한 局으로 出發하여 財務部, 經濟企劃院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現豫算局 및 經濟企劃院의 機構 詳說은 略 하도록 한다.

나)豫算局의 主된 機能은豫算의 編成과 執行인 데 이들을 統制・能率・發展政策計劃 等의豫算機能으로 파악해 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우 「統制志向」을 免치 못 한 만큼豫算局은 強力한 영향력을行使할 수 있으니 그 根據는豫算局이 ①豫算編成과 執行段階에서 主導權을 쥐고 있고, ②實質的인 面에서 最終의인豫算決定權者이며, ③豫算의 高度의 專門性, ④ 예산국의 傳統的 權威, ⑤豫算執行에서의 統制가 오늘날 常識으로 된 점 等이다.

第2節 各部處 및 그豫算의 性格과 影響要因의 分析

1. 大統領의 政策關心

大統領의 政策基本方針을 알아보기 위해 1974年度 大統領新年辭와 年頭記者會見에서 밝힌 施政方針을 行을 單位로 分類하고各分野에 對한 新年辭와 記者會見間의 有意性 有無를 分散分析法에 依據 分析해 본 結果 ①維新一國民總和 : 34.2%, ②國力培養 : 26.3%, ③國防 및 國家安全 : 26.8%, ④經濟生活의 安定 8.3%, ⑤其他 : 4.4% 等에 對하여 有意水準 $\alpha=0.05$ 에서 $F_{\alpha}=6.26$ 이므로 $F=37.1>F_{\alpha}=6.26$, 따라서 有意性있음이 檢定되었고, 이에 따라 그 分野間의 比重을 알 수 있다

(12) James W. Davis and Randall B. Ripley, "The Bureau of the Budget and Executive Branch Agencies: Notes on their interaction," *Journal of Politics*, November, 1967, pp. 768~769.

(13) Aaron Wildavsky,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Boston, Little, Brown & Co., 1964.

이러한政策最高決定權者의 施政方針下에 行政府의 主要施策內容가 決定되어 그 主要內容은 「행정백서」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略하도록 한다.

2. ~9. 研究對象으로 選定된 8個部處를 部處의 性格, 長官의 프로필, 影響要因概略等의 項目으로 상세히 說明하였으나 역시 略하도록 한다.

第3節 各部處와 豫算局과의 關係評價

各部處와 豫算局의 關係가 얼마나 圓滿한가를 밝히기에는 너무나 抽象的일 뿐 아니라 모두가 같은 行政府內에 位置하고 있으며, 大統領을 그 首班으로 모시고 있다는 同質性으로 因하여 그 圆滿한 程度를 評價하는 데 많은 難點이 있음을 認定하는 바이다. 그러나 各部處와 豫算局은 서로가 많은 豫算을 화보할 그리고 하는 努力과 이를 견제하고調整하려는 兩者의 立場이 相衝하는 만큼 그들 關係에는 各部處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는 것이事實이다. 따라서 이러한 關係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方式과 綜合的評價를 利用한다.

1. 質問紙(Questionnaire)에 依한 圆滿度評價.

各部處와 經濟企劃院과의 關係를 알아보기 위하여 作成한 質問이 部處用 質問紙(25)번, 經濟企劃院用 質問紙(23)번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부처와 경제기획원과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부터 순위를 배격주십시오.」

- ① ()상공부. ② ()보건사회부.
- ③ ()체신부. ④ ()건설부.
- ⑤ ()교통부. ⑥ ()법무부.
- ⑦ ()문교부. ⑧ ()농수산부.」

위의 問項은 Gode & Hatt가 말하는 一連의 質的事實을 一連의 量的事實로 바꾸는 方法인데¹⁴⁾ 이 問項에 對한 回答結果는 表(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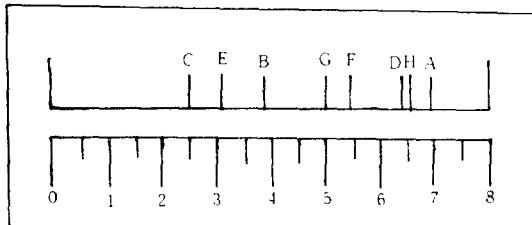
質問紙는 調查對象으로 삼은 個別部處에 對한 圆滿度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 順序를 매기도록 作成하였고 그에 對한 응답은 이를 順序를 表示하는 숫자를 平均한 것이다. 응답된 質問紙를 各部處의 評과 豫算局의 評으로 分類하여 각각 平均值를 求하여 之로 만든 것이 (表 3-1)이다.

(表3-1) 各部處의 豫算局에 對한 關係의 圆滿度 順位

평가자 대상	豫算局의 評	部處의 評	綜 合
A部	7.0	6.8	6.9
B部	4.4	3.2	3.8
C部	1.7	3.3	2.5
D部	6.8	5.8	6.3
E部	3.6	2.6	3.1
F部	6.1	4.7	5.4
G部	5.5	4.5	5.0
H部	7.7	5.7	6.7

이때 部處의 이름은 統計處理上, 被調查者들의 要求에 依하여 밝히지 않고 記號로서 表示했다. 또, 이 調査는 1974年 7月 23日~8月 7日까지 實시한 調査이며 이때 應答者的 數는 各部處 46名, 豫算局 26名, 總 72名이다. 위의 〈表3-1〉의 平均值를 가지고 部處들間의 順序를 直線上에 表示하면 (圖 3-1)과 같다.

(圖 3-1) 部處間의 圆滿度分布.



(圖 3-1)에서 보면 部處間의 圆滿度가 (C,E,B), (G,F), (D,H,A)의 3個群으로 分類되는데 이들을 分類했을 때 3個群 사이에 差의有意性이 있는지 여부를 檢定하기 위하여 分散分析法을 使用한結果는 다음과 같다.

$$\text{級間變動 } V_2 = \sum n_i (\bar{x}_i - \bar{x})^2 = 12.42$$

$$\text{級內變動 } V_1 = \sum \sum (x_{ij} - \bar{x}_i)^2 = 2.24$$

$$K=3, N=8이므로$$

$$F = \frac{\frac{V_2}{K-1}}{\frac{V_1}{N-K}} = \frac{\frac{12.42}{2}}{\frac{2.24}{5}} = 13.8$$

有意水準 $\alpha=0.05$, 自由度(2, 5) 일 때 F分布表에

(14) W.I. Goode & P.K. Hatt, *Methods in Social Research*,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52, p. 232.

서 $F\alpha=5.79$,

有意水準 $\alpha=0.01$, 自由度(2,5)일때 F分布表에서 $F\alpha=13.27$ 이므로

$$F = 3.8 > F\alpha(0.01) = 13.27$$

따라서 (C,E,B), (G,F), (D,H,A)의 3개群은 圓滿度差이有意性이 $\alpha=0.01$ 의有意水準으로 意味있음이 檢定되어 8개部處는 3個群으로 分類할 수 있다.

또 8부處에對한 두種類의 質問紙應答이 서로 有義性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시 分散分析法을 使用한 結果 $F=9.2$, 有意水準 $\alpha=0.05$, 自由度 7,8)일때 F分布表에서 $F\alpha=3.73$ 이므로 $F=9.2 > F\alpha=3.73$,

따라서 8개部處는 서로 差異가 있음이 檢定되었으므로 각部處에對한 豫算局의 評과 部處의 評사이에 서로 有義性있음이 立證된 것이다.

이러한 部處의 圓滿度가豫算關係者間의 人間關係를 映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을 우려하였으나 質問紙 分析結果相互 큰 差異가 발견되었으므로 人間關係는 無關하게 밝혀졌으며 그정도는 第四章의 質問紙 分析結果에서도 詳細히 볼 수 있다.

2. 經濟企劃院의豫算決定에對한各部處別 圓滿度에依한評價.

兩者의 關係程度를 알아보기 위해 두번째로 指標은 經濟企劃院의豫算查定結果 그額數에對한 각部處의 圆滿度를 指標(Indicator)로서 보아 그들 nder의 關係程度를評價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단일 項項이 「貴下는 예산요구액에 대한 經濟企劃院의 決定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한다. ②()만족하는 편이다.

③()보통정도이다. ④()불만족하는 편이다.

⑤()매우불만족이다.」

이 項項에對한各部處別應答의統計結果는 表(3-2)이다.

(表 3-2) 經濟企劃院決定에對한各部處別 圆滿度

부처	A	B	C	D	E	F	G	H
점수순위	2.1	3.2	3.7	2.8	3.4	2.7	3.2	2.3
순위	8	3	1	5	2	6	3	7

단, 점수는 5점만점으로 환산하여應答Category인 ①, ②, ③, ④, ⑤에 5, 4, 3, 2, 1점을 부여하고 이들을統計平均한 것임.

이 項項에對한 答은 여러가지複合的인 要因이 합쳐져서反映된應答으로 볼 수 있으니豫算局과 部處間의 關係程度以外에 人間關係에 대한 態度와純粹하게豫算要求額에對한查定結果에對한事業의 우선순위와比較하여判斷한 것, 其他 여러要因의反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豫算局과各部處의 關係程度를 주로 나타낸다고 보아도 크게 잘못이 없으므로 圆滿度의結果와補充하여使用한다.

第4節 総合的評價

豫算局과各部處의 關係가 圆滿한지? 않은지? 혹은 그程度가 얼마나이면 圆滿하다는意味는 무엇인지等에對한分明한對答이 必要하다.

그리고 圆滿한部處가 얼마나 實際豫算確保面에서 實績을내고 있는지를 分析해 보고各部處의事業性格과政策最高決定權者인 大統領의 意圖와事業에對한優先順位別查定結果를相互連結시켜서 分析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各部處에서豫算局에要求한豫算要求額은對外秘로되어 있으므로不得已이것은研究對象에서除外하고推象의인關係者에對한質問紙分析에依해서各部處와豫算局間의圓滿度와滿足度를通하여서만이들의關係(Relationship)를 알 수밖에 없다.

第3節에서圆滿度에對한部處의評과豫算局의各部處에對한順位評價에서相互關連성이 있음이分散分析法에依하여그有意性이立證되었다.

또,各部處가豫算局의決定에對하여 어느정도滿足하느냐는質問에對한應答結果의分析에도圆滿度와類似한結果를보아왔다.

이제 이러한兩指標의結果間에有意性이 있는지 여부를 검정해 보고 그것을補充·評價하여最終의 「部處와豫算局의關係」라는變數의測定值로使用토록하여第四章의分析에利用토록 한다 이를위하여圆滿度와滿足度間의類似程度를順位相關에依한分析方法을使用한結果順位相關係數 $\rho=0.97$ 인데이는 ρ 의性質上 $|\rho| \leq 1$ 이며 ρ

$\rho=1$ 이면 完全正相關이므로 $\rho=0.97$ 은 매우 相關關係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다시 相關係數의 有意檢定⁽¹⁵⁾을 해보면
公式 $F = \frac{r^2(n-2)}{1-r^2}$, 단, $(r: 상관계수, n: 대상항목수)$.

위 公式에 $\rho=0.97$ 을 代入하여 F 값을 求하면
 $F=994$, F 分布의 自由度($k-1, N-k$)에서 $k=2, N=8$ 이므로 自由度는 $(1, 6)$ 이다. 有意水準 $\alpha=0.05$ 라면 $F_{\alpha}=5.9$.

따라서 $F > F_{\alpha}$ 이므로 $\rho=0.97$ 인 원만도와 반족도는 높은 相關關係가 있음이 立證된 것이다. 따라서 豊算局과 各部處間의 關係程度를 圓滿度와 滿足度가 서로 높은 相關關係에 있으므로 이들兩者中 어느것 하나를 使用해도 좋다.

앞으로 豊算局과 各部處間의 關係程度를 測定한 數值로서는 圓滿度를 使用도록 한다.

第四章 豊算決定에서의 部處·豐算局關係 및 影響要因과의 相關性

第1節 假說

豐算決定에 있어서 影響要因들이 어떠한 것들인가에 對한 說明과 豊算決定에서의 部處·豐算局關係에 對하여서는 앞에서 記述한 바 있으므로 本章에서는 이러한 영향요인들과 豊算決定에서의 部處·豐算局關係가 어느 정도의 어떠한 相關性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暫定假說을 세우고 이들을 하나씩 檢定해 보도록 한다.

1. 前提假說.

〈假說가〉 「豐算決定의 影響要因으로 보는 各部處의 政治的 影響力, 豊算의 性質, 部處事業에 對한 豊算局과 部處見解의 異同, 豊算關係者間의 人間關係, 長官의 下局들에 對한 統制程度等은 部處와 豊算局과의 關係인 圓滿度와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假說나〉 「各部處와 豊算局과의 關係인 圓滿度는 部處의 政治的 影響力이 낮을수록, 見解가一致할수록, 豊算性質이 計量化할 수록, 豊算關係者間의 人間關係가 높을수록, 長官의 部處內下局들에 對한 統制가 잘 될수록, 그 程度가 높을 것이다.」

2. 細部假說

〈假說 1〉 「어떤 部處가 大統領의 信任이 두터운 國務委員을 長官으로 하고 國會나 與黨의 強力한 待 받침을 받고 있어 部處의 政治力이 强할수록 豊算局에 크게 依存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豊算局에 크게 依存하여야 할 것이다.」

〈假說 2〉 「어떤 部處가 그 事業을 量的으로 表示할 수 있으며 便益과 費用의 關係를 計量化할 수 있다면 그 部處와 豊算局의 關係는 比較的 圓滿할 것이다.」

〈假說 3〉 「어떤 部處의 豊算關係者와 豊算局關係者와의 사이가 좋을수록 그 部處와 豊算局의 關係는 圓滿해질 것이다.」

〈假說 4〉 「어떤 部處의 長官이 그 奉下의 局들을 잘 統制할수록 그 部處와 豊算局의 關係는 圓滿해질 것이다.」

〈假說 5〉 「어떤 部處의 事業에 對한 그 部處의 見解와 大統領 및 豊算局의 見解가一致할수록 그 部處와 豊算局間의 關係는 圓滿할 것이다.」

第2節 調査方法 및 資料의 菲集·分析

資料의 菲集은 크게 質問紙, 文獻資料, 面接 等의 方法을 使用하였다.

첫째, 質問紙는 獨立變數인 部處의 政治力, 豊算의 性質, 見解一致與否, 長官의 奉下機關統制力, 人間關係等을 각각 測定可能한 數個의 指標들을 잡아내어 이들을 각 指標에 하나씩의 質問紙 間項으로 作成하였다. 이때 각 間項마다 Likert尺度에 따른 5개의 카테고리로 分類하는 것을 주로하고 必要時에는 調査對象인 各部處相互間을 比較하기 위하여 順位로 應答을 要求하기도 하였다.

둘째, 이렇게 作成된 質問紙는 調査對象인 豊算關係者數名에게 pretest를 行하고, 專門家와 協議하여 順序配列과 語句修正, 不必要한 間項의 刪除等으로 좀더 信賴性과 妥當性을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質問紙는 調査對象이 各部處 豊算關係者와 豊算局關係者인 만큼 같은 內容을 두 種類로 作成하여 豊算局關係者와 미리 調査對象으로 選定

(15) 姜五俊, 統計學, 서울, 博英社, 1973. pp. 303~305.

한 8個部處 豫算關係者에게 配表調查法을 使用하였다.

셋째, 이때 선정한 8개 부처는 無作爲抽出(Random Sampling)이며 그들은 商工部, 農水產部, 建設部, 住健社會部, 交通部, 電信部, 法務部, 文教部 等인 채 全體 13個부처의 過半數이므로 全體 現象을 代表할 수 있는 代表性이 있다고 볼수 있다.

다섯째, 調查는 配表調查法을 使用하여 1974年 7月 23日 ~ 8月 7日(16日間) 사이에 行하였고 各部處마다 1~8回의 방문으로 回收된 質問紙는 部處用 55枚 配表中 48枚回收로 回收率 85.7%이고, 豫算局 40枚 配表中 26枚回收로 回收率 52%이었다. 이렇게 回收率이 낮은 理由는 調查期間이豫算編成과 가장 분주한 時期인 6月 ~ 9月인 7月 ~ 8月이었는 점과 質問의 性格이 部處의 政治力과 같은 答하 1 곤란하였던 점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이렇게 回收된 質問紙는 總74枚中 無誠意한 應答을 한 2枚를 除外하고 72枚를 分析對象으로 삼았다.

일곱째, 이들 資料는 앞節의 假說을 立證하기 위하여 分析되었으며, 分析時 使用한 統計方法은 x^2 -test, 相關係數, 回歸關係決定係數, 相關關係와 回歸系數의 有意檢定, 順位相關分析, 分散分

析法 等이다.

여덟째, 分析時 部處의 이름은 調查目的에도 反하지 않으므로 統計處理上, 또 被調查者들의 要求에 依하여 記號로서 表示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質問紙 以外 面接과 其他 資料는 可能範例로 動員하여 統計處理의 妥當性과 信頼性을 確立도록 하였다.

열째, 調査 對象者の 年齡別, 職級別 分布는 略한다.

第3節 相關性 立證을 위한 x^2 -test

〈假說 가〉 「豫算決定의 影響要因으로 보는 各部處의 政治的 影響力,豫算의 性質, 部處事業에 對한豫算局과 部處의 見解의 差異,豫算關係者間의 人間關係, 長官의 垂下局들에 對한 統制程度等은 部處와豫算局과의 關係인 圓滿度와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위의 假說을 立證하기 위하여 作成한 質問紙는 附錄(本論文에서는 略)에 있는 것과 같이 5개의 영향요인을 여러개의 指標를 합해 이를 問項으로 作成하고 각 問項은 (10), (11), (25)等 3개만 順位로 물었고 나머지는 모두 Likert尺度에 依하여 應答카테고리를 5개로 두고⁽¹⁶⁾ 이 중에 하나를 選

(表 4-1) 調査結果에 依한 指標別 部處別 點數配定表

변수	지표	문항	圓滿度 낮음				圓滿度 보통				圓滿度 높음			
			A	H	D	計	F	G	計	B	E	C	计	
政治的影響力	國會의 信任	8	4.0	4.2	4.3	12.5	3.5	4.2	7.7	2.4	2.6	3.0	8.0	
	大統領의 信任	7	4.8	4.6	4.8	14.2	4.0	4.8	8.8	4.1	3.8	3.5	11.4	
	與黨의 信任	9	4.0	4.1	4.2	12.3	3.7	4.1	7.8	3.6	3.7	3.2	10.5	
	部處의 政治力	10	6.7	4.7	4.0	17.4	3.7	3.3	7.0	2.3	2.0	1.3	5.6	
豫算性質	計量化	20	3.0	2.6	3.5	9.1	3.7	4	7.7		3.75	4.5	8.25	
關係者間關係	意思傳達	13	2.5	2.0	3.7	8.4	3.7	3.2	6.9		4.0	4.5	8.5	
	事業認識	14	3.9	3.8	3.25	10.95	3.7	3.4	7.1		3.25	3.0	6.25	
	事業의 好意度	15	3.1	2.65	3.85	9.6	3.7	3.0	6.7		3.7	3.7	7.4	
	接觸公式度	16	3.9	4.0	4.2	12.1	4.7	5.0	9.7		4.25	4.5	8.75	
	接觸회수	17	2.6	4.8	4.0	11.4	4.7	4.5	9.2		4.25	5.0	9.25	
見解	見解의 差異	19	2.4	2.4	3.3	8.1	2.7	2.6	5.3		3.4	3.6	7.0	
산하기 통	산하기 관의 獨立性	6	3.7	2.7	2.0	8.4	2.0	2.5	4.5		1.8	1.9	3.7	
	自律性	5												

(16) Paul U. Young, *Scientific Social Surveys and Research*, Prentice-Hall, 1956, p. 335.

擇하도록 하였다. 各應答카테고리에 對한 應答의 절수 환산은 ①, ②, ③, ④, ⑤,에 대하여 5, 4, 3, 2, 1,의 점수를 부여하여 各指標 別로 尺度를 삼고 그 값을 尺度值로 使用하였다.

따라서 위의(表4~1)은 1~5點 사이의 分布이며 5點을 滿點으로 表示한 것이며 指標中 部處의 政治力만 오직 8點을 滿點으로 한 것이다. 또, 가로項의 部處의 分類는 第三章의 分類結果이며 이들은 各部處와 豫算局間의 圓滿度가 높은 群, 낮은 群, 보통인 群이 3개의 分類의 有意性은 역시 앞에서 分析한 대로이다.

本節에서는 前是假說, 즉, 영향요인과 원만도간의 相關性 有無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調査結果의 尺度值를 表로 作成한 것이(表 4-1)이다.

위表에서 알듯이 調査對象 8個部處中에서 B部處의 경우 調査進行中 配表 및回收가 되지 못하여 結果處理에서 除外되었다. 또, 이 表은 各指標別로 5點滿點으로 이들을 平均하여 各各 100點滿點으로 換算한 것이(表 4-2)이다.

(表 4-2) 영양요인별 환산점수표.

변수	원만도	원만도낮음	원만도보통	원만도높음
政治力	83.1	76.7	56.0	
豫算의 性質	60.6	77.0	82.5	
人間關係	70.0	79.6	80.3	
見解	54.0	53.0	70.0	
傘下機關統制	56.0	45.0	37.0	

이제 變數別 相關性을 가지는지 與否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의 技法을 使用하도록 한다. 원래 χ^2 -test는 理論度數와 測定度數間의 相關性 有無를 檢定하는 方法인데 여기에서는 理論値와 調査測定値間의 相關性 有無를 알아보자 한다. 그런데 亂面關係上計算過程은 略하고 結果만 보면 $\chi^2=17.05$, 또, 自由度 $v=(m-1)(n-1)=8$, 有意水準 $\alpha=0.05$ 일 때 $\chi^2_{\alpha}=15.51$, 따라서 $\chi^2 > \chi^2_{\alpha}$ 이므로 圓滿度와 變數들間에 相關성이 없다는 檢定假說이 棄却되어 影響要因들과 圓滿度는 相關성이 있다. 對立假說이 採擇되어 처음부터 檢定할려던 前提假說(假說가)는 承認된 것이다.

第4節 細部假說의 立證

前提假說이 1)立함으로써 영향요인들과 원만도

와의 相關性이 있음이 立證되었다. 이제부터는 各影響要因 하나하나와 어떤 關係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細部假說로 세워둔 假說 1) 假說 2) 假說 3) 假說 4) 假說 5)를 順序대로 檢討해 보도록 한다.

1. 相關係數와 그 有意檢定에 依한 假說1)의 檢討

<假說 1>「어떤 部處가 大統領의 信任이 두터운 國務委員을 長官으로 하고 國會나 與黨의 強力한 뒷받침을 받고 있어 部處의 政治的影響力이 強할 수록 豫算局에 크게 依存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豫算局에 크게 依存해야 할 것이다.」

假說 1)의 立證을 위해서 獨立變數로서 部處의 政治的影響力を, 從屬變數로서 部處가 豫算局에 依存하는 程度를 잡았다. 前者와 的 指標로서는 部處長官에 對한 大統領의 信任度, 國會와 與黨의 支持度, 部處의 全般的 政治的影響力を 잡아서 이를 部處用 質問紙 問項 (7), (8), (9), (10)번에, 豫算局用 質問紙 (18)번에 각각 包含시켰다. 後者와 的 指標로서는 質問紙 問項 (11)번(豫算局用은 (7)번) 즉, 「經濟企劃院이 貴部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豫算을 삭감할려 할 경우에 보통 貴部處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개에 해당하면 중요한 것으로부터 順位를 매겨주십시오)」

- ①()청와대, 총리실에 협조요청.
- ②()여당에 협조요청.
- ③()관계자와의 비공식 접촉.
- ④()부처내에서 새로운 전략모색.
- ⑤()간관과 경제기획원 간 관과의 접촉.
- ⑥()참는 수 밖에.
- ⑦()기타.」

위 質問에 對한 應答中에서 ①, ②, ④, ⑤는 豫算局에 依存하지 않는 立場으로 나머지 ③, ⑥, ⑦은 豫算局에 依存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程度를 點數로 配定하였다. <表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個部處中 B部處는 事情上 質문지를 配表回收하지 못하였으므로 際外하고 나머지 7個部處만 보도록 한다.

이 7個部處의 豫算局依存度와 部處의 政治力과의 相關度를 分析하는데 이때 表에서 從屬變數로

(表 4-3) 部處의 政治的 影響力와 豫算局依存度

변수	기준	지표	부처							
			A	B	C	D	E	F	G	H
獨立變數	政治力	國會	4.0	2.4	3.0	4.3	2.6	3.5	4.2	4.2
		大統領	4.8	19.5	4.1	12.4	3.5	12.0	4.8	19.3
		與黨	4.0	3.6	3.2	4.2	3.7	3.7	4.1	4.1
		全般	6.7	2.3	1.3	6.0	2.0	3.7	3.3	4.7
從屬變數	獨立性	①	16	—	10	17	14	10	21	12
		②	6	—	5	13	7	5	12	6
		④	26	84	—	20	60	25	75	18
		⑤	36	—	25	20	20	27	20	36
	依存性	③	12	—	40	15	22	20	17	8
		⑥	4	16	—	40	10	25	14	36
		⑦	—	—	—	—	—	—	—	8

表示된 것은 각 부처별 항목 분석 결과를 1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非依存度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獨立度를 나타낸 수치이다.
이제 각 부처의 政治力와 豫算局非依存度(独立度)와의 상관係수 r 을 구한 계산 결과는 $r=0.80$ 이다. (계산 과정은 略).

i) 相關係수의有意検定을 해보면

$$F = \frac{r^2(N-2)}{1-r^2} = 8.90 \text{ 며 } \text{自由度}(k-1,$$

$N-k)$ 에서 $k=2$, $N=7$ 으로 自由度는 $(1,5)$ 이다.
有意水準 $\alpha=0.05$ 이라면 $F_{\alpha}=6.61$ 이다.

따라서 $F=8.9 > F_{\alpha}=6.61$

그리고 相關係수 $r=0.80$ 일 때 政治力와豫算局非依存度 관계는 有意水準 $\alpha=0.05$ 로서 承認되었다. 故此 假說 1은 有意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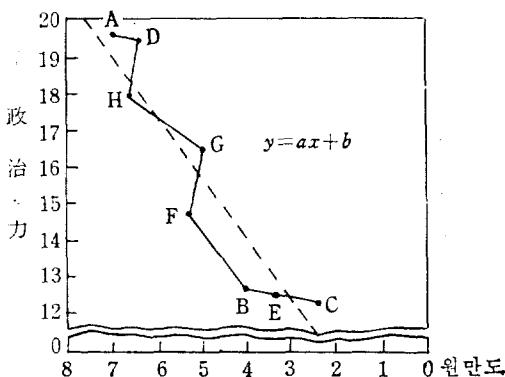
다음으로 政治力와 圓滿度를 比較해 보면 (表 4-4), 图 4-1과 같다.

(表 4-4) 政治力와 圓滿度의 比較

	A	B	C	D	E	F	G	H
政治力	19.5	12.4	12.0	19.3	12.1	14.9	16.4	17.6
圓滿度	6.9	3.8	2.5	6.3	3.1	5.4	5.0	6.7

다음은 (图 4-1)에서 政治力와 圆滿度는 負의 相關係수를 가지며 $r=-1$ 에 가깝게 되므로 兩者は 反對의 特性을 냥게 하는 反比例의 性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图 4-1) 政治力와 圆滿度의 比較圖.



2. 回歸係數와 그 有意検定에 依한 假說2)의 檢討.

〈假說 2〉 「어떤 부처가 그 事業을 量의으로 表示할 수 있으며 便益과 費用의 關係를 計量化할 수 있다면 그 부처와豫算局의 關係는 比較的 圓滿할 것이다.」

(A) 回歸直線의 計算.

假說 2는 獨立變數로 부처豫算의 計量化, 從屬變數로 부처와豫算局의 關係인 圓滿度로構成되어 있는데 이를 變數를 測定하기 위하여 質問紙問題 20번과 25번을 作成하였고 그 應答值를 統計하여 定理한 것이 (表 4-5)이다. 또, 이表를 이용하여 回歸分析時의 回歸直線을 $y=a+bx$ 라 놓을

때 a, b 의 값을 小自乘法에 의하여 구할 수 있으며 계산 결과의 k 은 $y=a+bx=1.21+0.52x$

그러나 회귀선의 기울기는 x, y 測定에 사용한尺度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x, y 의 相關度를詳細히 알아 보기위해 회귀선의 決定係數를 구하여 보아야 한다.

(表 4-5) 計量化와 圓滿度

부	處	A	B	C	D	E	F	G	H	
計	量	化	3.0	—	4.5	3.5	3.75	3.7	4.0	2.6
圓	滿	度	6.9	—	2.5	6.3	3.1	5.4	5.0	6.7

이때 회귀關係決定係數 $R^2=0.61=r^2$ 따라서 회귀係數 $r=\sqrt{R^2}=\sqrt{0.61}=0.78$ 이다.

B. 회귀係數의有意性検定.

회귀係數의有意性検定은 F分布를 이용한 F值에 의해 可能하므로 이때 $F=\frac{r^2(N-2)}{1-r^2}$ 이며 自由度는 $(k-1, N-k)$ 이므로 $r=0.78, N=7, k=2$ 를 대입하면 $F=7.8$, 自由度 $(k-1, N-k)$ 가 $(1, 5)$ 이므로 有意水準 $\alpha=0.05$ 이면 $F_\alpha=6.61$ 이며 이것의 檢定統計量인 $F=7.82$ 이므로 $F>F_\alpha$ 이다.

즉, $F>F_\alpha$ 이므로 지금까지 회귀分析에서 얻은 회귀係數는 有意生 있음이 立證되었다. 따라서 部處豫算이 計量化할수록 部處와豫算局의 關係는 圓滿해질 것이다라는 假說는 有意水準 $\alpha=0.05$ 로서 承認된 것이다..

3. 順位相關係數와 그 有意検定에 依한 假說 3의 檢討

〈假說 3〉 「0~5 部處의豫算關係者와豫算局關係者와의 사0 가 좋을수록 그 部處와豫算局의 關係는 圓滿해질 것이다.」

假說 3의 構成은 獨立變數로서 人間關係, 從屬變數로서는 圓滿度로 되어 있으며 人間關係를 測定하기 위하여 잡은 指標들은 ① 애기상대로서의 適合與否, ②豫算局查定官의 部處事業에 對한 認識程度 ③豫算局查定官의 部處事業을 評價할 때 取하는 立場 ④關係者접촉의 公式性 ⑤ 접촉회수 등이다.

이들 각자를 알아보기 위해 質問紙問項 部處用 (13), (14), (15), (16), (17),豫算局用 (9), (10), (11), (12) (13)번으로 각각 作成하여 各部

處別로 統計處理하였다. 이때豫算局用質問紙는豫算局에서 主로 담당하는 部處를 記入하도록하였으므로 이들도 各部處에 合計하여 處理하였으며點數配點은 各問項 모두 5點에서 1point으로 加重하였다. 從屬變數인 圓滿度는 앞에서 求한 것을 使用하여 獨立變數인 人間關係의 配點과 함께 表を作成하여 順位相關係數를 求하였다니 $\rho=0.87$ 이어서一般的으로 $|\rho| \leq 1$ 이므로 매우 큰 相關關係가 있게 나타났고 이 값으로 相關係數의 有意檢定을 했더니 $F=\frac{\rho^2(N-2)}{1-\rho^2}=15.5$, 自由度 $(k-1, N-k)$ 에서 $(1, 5)$ 이므로 有意水準 $\alpha=0.05$ 로 보면 $F_\alpha=6.61$ 이므로 $F=15.5>F_\alpha=6.61$ 이다.

따라서 檢定假說을 棄却하고 對立假說을 採擇한다. 즉, 關係者間의 人間關係와 部處豫算局間의 關係인 圓滿度는 相關關係가 있다고 볼 수 있어 假說 3은 承認되어 有意함이 立證되었다.

4. 順位相關係數와 그 有意検定에 依한 假說 4의 檢討

〈假說 4〉 「어떤 部處의長官이 그傘下의局들을 잘 統制할수록 그 部處와豫算局의 關係는 圓滿해질 것이다.」

假說4는 獨立變數로 長官의 傘下局들에 對한 統制程度, 從屬變數로 部處와豫算局의 關係인 圓滿度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를 計量化하기 위하여 部處別로 ①獨立性과 自律性을 많이 누리는 傘下의 局, ② 그 局에 對하여豫算編成時에 다른 局과는 달리 考慮하는 程度 등을 質問紙 (5) (6)項目에 包含시켜서 그에 對한 應答을 評點함으로서 測定도록 하였다. 그 測定值와 圓滿度를 順位相關分析을 利用하여 相關性與否를 알아보기 위해 順位相關係數를 求하였다니 $\rho=0.85$ 이어서 큰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를 더욱 分明히 하기 위하여 相關係數의 有意檢定을 해보았더니 $F=12.9$ 自由度 $(1, 5)$ 이므로 有意水準 $\alpha=0.05$ 로 보면 $F_\alpha=6.61$ 이다. 따라서 $F=12.9>F_\alpha=6.61$ 이므로 檢定假說은 棄却되고 對立假說이 採擇된다. 즉, 長官이 傘下의局들을 잘 統制하여 局들이 獨立性이나 自律性이 적어질수록 그 部處와豫算局의 關係는 圓滿해져서 假說 4는 有意水準 $\alpha=0.05$ 로서 承認되어 有意함이 立證되었다.

5. 順位相關係數와 그 有意検定에 依한 假說5의

檢討

〈假說 5〉 「어떤 部處의 事業에 對한 그 部處의 見解와 大統領 및 豫算局의 見解가 一致할 수록 그 部處와 豫算局의 關係는 圓滿할 것이다.」

獨立變數로 部處事業에 對한 部處·大統領·豫算局見解의 一致度, 度從屬變數로 部處와 豫算局關係의 圓滿度를 들 수 있으며, 이 獨立變數를 測定하기 위상에 質問紙問項 部處用 (19)번, 豫算局用 (15)번을 作成하고 그 應答을 5點에서 1點으로 매겨 各部處別 集計平均한 值과 圓滿度의 値를 가지고 順位相關係數를 求하였다. $\rho=0.85$ 이고 이는 큰 相關關係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客觀히 알아보기 위하여 相關係數의 有意檢定을 作하면 $F=\frac{\rho^2(N-2)}{1-\rho^2}=12.9$, 自由度 (1, 5)이므로 有意水準을 $\alpha=0.05$ 로 하면 $F_\alpha=6.61$ 이다.

따라서 $F=12.9>F_\alpha=6.61$ 이므로 檢定假說은 棄却되고 對立假說이 採擇된다. 이렇게 하여 部處事業에 對한 大統領·豫算局과 部處의 見解가 一致할 수록 그 部處와 豫算局의 關係는 圓滿해질 것이라는 假說 5는 有意水準 $\alpha=0.05$ 로서 承認된 것이다.

第 5 節 歸結假說.

〈假說 7〉 「部處의 政治的 影響力이 낮을수록, 事業에 對한 部處와 豫算局의 見解가 一致할 수록, 豫算의 生質이 計量化할수록, 豫算關係者의 人間關係가 높을수록, 部處內 垂下의 局들을 長官이 잘統制할수록 部處와 豫算局의 關係는 圓滿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獨立變數로 部處의 政治力, 豫算의 計量化, 見解의 一致度, 關係者의 人間關係, 長官의 垂下層들의 統制力 등을 참고 從屬變數로 部處와 豫算局의 關係인 圓滿度를 보아 〈假說 7〉에서 獨立變數와 從屬變數의 相關性이 큼을 x^2 -test에 依하여 $\alpha=0.05$ 有意水準으로서 立證하였다. 그 다음에 新部假說의 檢討에서 그들 獨立變數 하나하나와 從屬變數와의 關係를 假說 1, 假說 2, 假說 3, 假說 4, 假說 5를 通하여 相關係數, 回歸決定係數, 順位相關係數 등을 求하고 相關係數, 回歸係數의 有意檢定을 함으로써 立證하였다. 따라

서 獨立變數 全體와 從屬變數와의 關係는 細部假說의 内容에 따른 關係가 있다. 따라서 이들 内容의 綜合인 〈假說 7〉는 立證된 것이다.

第 6 節 豫算決定에서의 變數間의 比重

지금까지는 獨立變數 하나하나와 從屬變數로서의 圓滿度와의 關係를 보아왔다. 이제 이러한 變數들이 實際豫算決定에 어느 정도의 重要한 比重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作成한 問項이 「(23) 你하는豫算決定에 미치는 다음의 영향요인 중에서 重要한 것으로부터 順位를 매기신다면？」

- ① () 각부처의 정치적 영향력
- ② () 사업의 計量化 정도
- ③ ()豫算關係者間의 人間關係
- ④ () 사업에 대한豫算局과 部處 見解의 差異
- ⑤ () 부처와 산하기관과의 關係.」이며 이에 對한 應答結果를 順位相關係數를 求하였더니 $\rho_A=0.675$, $\rho_C=0.925$, $\rho_D=0.6$, $\rho_E=0.9$, $\rho_F=0.9$, $\rho_G=0.975$, $\rho_H=0.6$, 等이다. 이 順位相關係數를 有意檢定을 해보면 $F=\frac{\rho^2(N-2)}{1-\rho^2}$ 의 公式에 依하여 求하여진 值은 각각 $F_A=4.2$, $F_C=30.7$, $F_D=F_H=2.8$, $F_E=F_F=21.3$, $F_G=96.1$ 이고 有意水準 $\alpha=0.05$, 自由度 (1, 5)에서 $F_\alpha=6.61$ 이므로 $F_C, F_E, F_F, F_G > F_\alpha$ 이다. 따라서 C, E, F, G部處는 平均과 높은 順位相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F_A, F_D, F_H < F_\alpha$ 이므로 A, D, H部處는 平均과는 差異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 事實은 A, D, H部處가 政治力이 強한 部處인 만큼 政治力이 弱한 部處와는 달리豫算決定에 미치는 變數의 比重이 서로 差異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政治力이 強한 部處는 變數間의 比重이 全部處의 平均과 差異가 있다는 檢定假說이 採擇되고 政治力이 弱한 部處는 檢定假說을 棄却하고 差異가 없다는 對立假說을 採擇한다. 따라서 政治力이 弱한 部處는 全體部處의 平均으로 나타난 變數間의 比重과 높은 順位相關關係가 있음이 立證되었다. 또 위의 結果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첫째, 一般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政治力이 強한 部處와 弱한 部處間에는 變數에 對한 比重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全般的'! 面에서는 ①豫算의 性質, ②部處의 政治力, ③事業에 對한 豫算局의 見解와 部處의 見解, ④豫算關係者間의 人間關係, ⑤長官의 奉下局들에 對한 統制 等의 順位로 變數間의 比重이 나타나 있다.

셋째, 政治力이 強한 部處는 ①見解, ②豫算의 性質, ③政治力, ④長官의 統制, ⑤人間關係의 順序인데 여기에 그들은 人間關係와豫算의 性質을 輕視하고 見解와 長官의 統制를 重視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넷째, 政治力이 弱한 部處는 ①豫算의 性質, ②政治力, ③見解, ④人間關係, ⑤長官의 統制의 順序로 나타난 바와 같이豫算의 性質을 제일 重視하고 人間關係를 重視하는 것으로 나타나 흔히 말하는 얌전한 부처답게 變數間의 比重이 나타난 것이다.

第7節 豫算決定와 圓滿度

—研究의 限界—

우리나라에서豫算決定은 먼저 政治的 次元에서의 基本政策。나 重要事業의 優先順位가 주어지고 이들을 各部處間의 事業間優先順位로 細分化하여 이것이豫算局調整過程에서의 必要한 基準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重要事業과 거기에 따른豫算配定은豫算局에서도 削除하기는 困難하지만 이들에 對한 額數決定이나 細部事項에 對하여는豫算局에서도 이를 調整할 權限과 役割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豫算決定에 對한 影響要因 5개의 變數를 獨立變數로 보고 이에 對한 從屬變數로서 圓滿度를 보아왔다. 그러나 圓滿度가 높은 部處가豫算局으로부터 많은豫算을 確保하거나 그豫算額增加率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豫算決定을 높이기 위해서는 政治力, 見解, 性質, 長官의 統制力, 人間關係等諸要因의 程度가 높아야 하는데 圓滿度는 다른諸要因과는 比例의 이지만 政治力과는 反比例의 입을 앞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豫算決定을 높이기 위하여는 政治力を 除外한 圓滿度가 높아야 하고 同時に 政治力도 높아야만 可能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5變數가 具體的으로 어느정도의 影響力を豫算決定時에 行使하고 있는가를 불려던筆者の 처음 意圖는 資料不足이라는 벽에 부딪쳐

더以上 進前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처음에는豫算局에 對한 各部處의豫算要求額과 主要事業의豫算額, 이들과 行政首班인 大統領의 施政方針 및 行政府主要政策과 關聯시켜서 그들 事業에 對한 政策決定者의 意圖와 優先順位와 實際豫算局의 決定額間의削減比率等을 좀더 分析하여豫算局과 部處의 圓滿度가豫算決定에 있어 어떤 意味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봄은 물론 變數 하나하나와豫算決定을 獨立變數와 從屬變數로 보아相關性을 檢討하여 보다 詳細히豫算決定에 對한 影響要因을 分析하고자 시도하였으나 各部處에서豫算局에 要求한豫算要求額은 對外秘密으로 資料를 얻을 수가 없었음을 有感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研究上의 限界로 因하여 처음 意圖했던 것은 半밖에 밝히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운 마음으로 남겨 둘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圓滿度와豫算決定과의 關係를 分明히하고자 模型을 만들어 보면

$$\begin{aligned} \text{圓滿度} \quad R &= F_1(P, V, N, C, H) \\ &= -a_1P + b_1V + c_1N + d_1C + e_1H, \\ \text{豫算決定} \quad B, D &= F_2(P, V, N, C, H) \\ &= -a_2P + b_2V + C_2N + d_2C + e_2H, \\ \text{단, } (N: \text{豫算性質}, \quad H: \text{人間關係}, \\ &\quad P: \text{政治力}, \quad V: \text{見解}, \quad C: \text{統制力},) \end{aligned}$$

따라서 B, D 증가(↑)위해 P증가(↑), V증가(↑), N증가(↑), C증가(↑), H증가(↑)이어야 한다. 즉, 더 많은 額의豫算確保를 위해서는 모든 變數가增加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만도만으로는豫算決定에對한效果를 完全히 파악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이 研究의 限界인 것이다. 또 위의 두 方程式에 充實한 資料들을適用하여 Computer를 使用한 多變數回歸分析으로 a_1, b_1, \dots 와 a_2, b_2, \dots 의 偏回歸係數까지 求함으로 圓滿度와豫算決定의 方程式을 計算하여 좀더 圓滿度와豫算決定을 分析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마음으로 남겨 둔다.

第五章 結論

國家의 살림살이인 財政에 關하여 行政首班인 大統領이 施政方針을 提示하고 이 方針을 行政各部處는 具體的인 事業을 通하여 實施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事業의效果的·能率的·遂行을 위하여人的·物的資源의效果의인配分이重要함을 보아왔다. 여기에서一定한國家의財政을놓고서各部處는 서로 많은豫算을確保하고자 갖은手段과努力를 기울여豫算局으로부터豫算을分配받게 되는데 그過程에서豫算決定이豫算局과各部處間의 여러가지要因의複合作用의產物로되어음을보았다.

이때豫算局과各部處의關係를決定지워주는5개의影響要因이있으며이들要因에따라豫算局과部處의關係程度가圓滿하나혹은그렇지못하나가決定되는것이다. 이와같이獨立變數인5개影響要因과從屬變數인圓滿度間에는相關關係가有意함이 모두앞에서하나씩立證되었으며그結果導出된假說은다음과같다.

〈假說 2〉

「豫算決定의影響要因으로보는各部處의政治的影響力,豫算의性質,部處事業에對한豫算局과部處見解의異同,豫算關係者間의人間關係,長官의傘下局들에對한統制程度等은部處와豫算局과의關係인圓滿度와相關關係를가지고있다.」

〈假說 1〉

「부처와豫算局과의關係인圓滿度는부처의政治的影響力이낮을수록,見解가一致할수록,豫算의性質과計量化할수록,豫算關係者間의人間關係가좋을수록,長官의부처내傘下局들에對한統制가증될수록,그程度는높아진다.」

〈假說 3〉

「어떤부처가大統領의信任이두터운國務委員을長官으로하고國會나與黨의強力한뒷받침을받고있어부처의political影響力이강할수록豫算局에크게依存하거나않을것이나,그렇지못할때는豫算局에크게依存하여야할것이다.」

〈假說 4〉

「어떤부처가그事業을量적으로表示할수있으며便益과費用의關係를計量化할수있다면그부처와豫算局의關係는比較的圓滿할것이다.」

〈假說 5〉

「어떤부처의豫算關係者와豫算局關係者와의人間關係가좋을수록그부처와豫算局의關係는

圓滿해질것이다.」

〈假說 4〉

「어떤部處의長官이그傘下의局들을잘統制할수록그부처와豫算局의關係는圓滿해질것이다.」

〈假說 5〉

「어떤部處의事業에對한그부처의見解와豫算局의見解가一致할수록그부처와豫算局의關係는圓滿해질것이다.」

다음에質問紙結果에依한豫算決定에미치는영향요인5개간의比重은앞장에서본바와같이政治力이强한부처와弱한부처간에差異가있음을보았다.

또,豫算決定 $B.D=a_2P+b_2V+C_2N+d_2C+e_2H$ 인만큼以上에서導出한諸假說과豫算決定等의關係를고려해볼때各部處豫算戰略을위한準備段階로서的基本方向을提示할수있다.

첫째,長·次官의보다強力한political影響力行使

둘째,事業에對한大統領과豫算局의意圖나見解를바로파악할수있도록情報蒐集과分析및그에對하여見解의一致를위한努力,

셋째,可能한限豫算을便益과費用의關係를明確히하여架空의아니다는確信을豫算局關係者에게주는한편

넷째,各部處가豫算局과의關係에있어서傘下의局들이獨自의,自律의關爭보다는長官의一貫된調整과計劃下에豫算局과交涉,調整을벌이도록한다.

다섯째,可能한限部處豫算關係者는豫算局關係者와의健全한意味에서의좋은人間關係를維持하고理解나說得에才能이있는사람을選擇하며또부처의事業에對한知識이나經驗이많아서ability이있는사람이適格이다.

그리고本研究에서資料蒐集의難點等많은研究의限界가있었음을밝히지않을수없다.

첫째,豫算關係業務의秘密性이다.둘째豫算決定에있어서여러要因이複合적으로作用하고그過程또한多樣한力學作用의結果라는點이다.

셋째,調查對象者였던豫算局이나部處豫算關係者가年中繼續마련며특히6月~9月中은더욱

분당한 점이 두.

넷째, 豫算關係業務의 高度의 專門性으로 必要한 資料와 重要的 資料를 選定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必要한 用語의 概念規定의 어려움도 빼놓을 수가 없는 점이다.

以上과 같은 資料蒐集 等의 困難性으로 因하여 本論文의 研究에서도 그만큼 不充分하고 不完全함을 솔직히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圓滿

度와 豫算決定과의 關係를 分析하고 影響要因과豫算決定과의 相關關係與否도 더 事實의이고 完全한 資料로서 明確히 究明되어야 할 課題이다.

따라서 本研究의 未備한 點을 補完할 수 있도록 더 充實하고 完全한 資料에 依據하여 廣範圍한 研究가 이루어져 豫算戰略을 위한 具體의이고 基本의인 原理를 밝혀 냄으로써 豫算決定에까지 이르는 妥當하고 確固한 理論이 研究發展되기를 期待한다.